

# KCC 신입사원, 시각장애인 위해 목소리 기부

### 오디오북 만들어 독서취약가정에 전달

KCC신입사원들이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목소리 기부에 나섰다.

KCC는 특별한 오디오북을 만들어 동화책을 읽어주기 어려운 독서취약가정에 기부하기 위해 신입사원들이 재능기부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눔 활동에는 사회적기업 알로하 아이디어스도 함께 했다.

이번 녹음을 위해 신입사원들은 전문 성우로부터 목소리 연기 훈련을 받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녹음에 참여한 한 신입사원은 "눈으로 읽는 대신 소리로만 내용을 듣는 오디오북만큼 녹음할 때 발음이 어렵거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각각 미리 펜으로 표시하고 포스트잇을 붙여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많은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총 4시간 가량 진행된 목소리 녹음을 통



목소리 기부에 참여한 KCC 신입사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해서 신입사원들은 '눈다래기 팔아요', '토끼와 거북', '엄마손은 약손', '도마뱀아 도마뱀아 비를 내려라' 등 총 4편의 동화책 오디오북을 완성했다.

재능기부에 동참한 또다른 신입사원은 "동

화책은 아이들이 만나는 첫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 목소리를 통해 아이들이 동화 속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상상력을 키우고 국어 습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타다 '무죄'



### 기지수첩

구서연  
(산업부)

"타다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이용자와 쓰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일 재판부가 타다의 무죄를 결정하면서 한 말이다.

이로써 작년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법 콜택시' 오명을 쓴 이후 약 4개월 만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장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결과에 항의하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법원 밖에서 만난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승객들이 택시 불친절하다고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사도 많다. 렌트카로 사람이 동시켜주면서 돈 받는 유사영업을 허용하면, 앞으로 누가 택시면허를 따려고 하겠냐" 등의 울분을 쏟아냈다.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많다. 아직 타다에 논란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향후 렌트카를 통한 유사운송을 하려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택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총파업과 여의도 국회 앞 '여객운수법 개정안 즉시 통과' 대규모 켈기대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단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시위의 역효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고, 신산업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 윈윈전략을 찾는 데 몰두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 본다. 무조건적인 타다 반대는 승객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타다는 최근 택시와의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 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이 떠올른다. /yuni2514@metroseoul.co.kr

# 한화큐셀 태양광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서 대상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이 에너지 저소비 부문에서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신정이펜하우스5단지'가 서울시에서 개최한 '2019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아파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경진대회는 에너지절약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한화큐

셀이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 일환으로 2018년 설치한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옥상 태양광 발전소는 240kWp(키로와트피) 규모로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선정된 한화큐셀과 같은 대여사업자가 가정과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절감한 전기

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여사업자는 계약기간 7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설비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한화큐셀은 2014년부터 5년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5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오늘의 운세 2월 25일 (음 2월 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사소한 일에 성질내는 것을 삼가 보도록. **48년생**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도 능력. **60년생** 도중하차(途中下車)는 아니지만 겁만 못하다. **72년생** 어떠한 일이건 해낼 수 있는 날. **84년생** 재능이 출중하지만 협력해서 해야.
- 37년생** 황혼 결혼식도 긍정적으로. **49년생** 삼재이니 건강 기도를 신청해보라. **61년생** 궁지에 몰려 행동의 제약이 생긴다. **73년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공할 것. **85년생** 학습의 체계는 드넓은 스승이다.
- 38년생** 후량이 없는 곳에 여우가 편다. **50년생** 돈이 사람을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게 한다. **62년생** 열을 붉은 꽃이 없으니 운이 왔을 때 열심해. **74년생**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소림을 자제. **86년생** 늘 기본에 충실하라.
- 39년생** 대가족 행사로 바쁜 하루. **51년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재물도 들어온다. **63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후배에게 교감을. **75년생** 업무 중에 남에게 의심 살만한 일은 자제. **87년생**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는다고 했다.
- 40년생** 대들보가 무너지면 사기래도 무너진다. **52년생** 인생의 예수는 경험일 것이다. **64년생** 땅에서 밭을 갈고 물에서 고기를 낚는 것이 세상 이치. **76년생** 갑작스러운 초고속 승진 예상. **88년생** 열심히 했으나 힘만 든다.
- 41년생** 한배에 탔으니 힘을 합쳐라. **53년생**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판다면 이미 때는 늦는다. **65년생** 늦은 결혼이나 출거움이 꽃핀다. **77년생** 오후 되면 신규로 투자할 곳이 생긴다. **89년생** 겸손의 공덕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 42년생** 손자의 재주가 비상하니 조심해 감사. **54년생** 산 위에 외로이 비추는 달처럼 감동의 날. **66년생** 업무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보도록. **78년생** 형들이 있으나 내가 많이 노릇. **90년생** 어찌 그 남자는 그림의 떡.
- 43년생** 밖에도 나가고 하자. **55년생** 머리가 가려운데 발꿈치를 긁는다. **67년생** 생 소를 보고 양을 보지 못한다면 사업의 투자는 신중. **79년생** 내가 아름다워지면 주변이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길. **91년생** 기억력을 향상하라.
- 44년생**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나를 멀리한다. **56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68년생** 돈을 못 버니 허수아비 남편이 된다. **80년생** 하나를 알면 몇 가지가 인공되니 기회가 온 듯. **92년생** 분수없는 행동을 자제하는 날.
- 45년생** 모아서 부모님의 산소재정비를 계획. **57년생** 아직은 젊으니 외모에 신경 쓰면서 기분 좋다. **69년생** 사람은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다. **81년생** 자기 생각을 표현하여 추진하라. **93년생** 일이 미흡해도 전진해야 발전.
- 46년생**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으니 건강에도 도움. **58년생** 업무에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다. **70년생** 본인이 저지른 일은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해결하라. **82년생** 잘못된 투자는 결국 내 손실로. **94년생** 본심수이니 지갑 잘 챙겨라.
- 47년생** 초년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자식에게도 이어진다. **59년생** 주변에 회색분자(灰色分子)를 경계. **71년생** 선배를 공경하니 업무가 척척 될. **83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해야 좋다. **95년생** 전화금융사기 등의 책에 걸리지 않도록.



# 김상희의四季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

신중기도는 사찰의 규모에 따라 보통 7일 동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초사흘까지 삼 일만 하기도 한다. 불보살님은 물론 일백 사위 신중들께 특별히 한 해의 복덕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두 호해주심을 빈다.

기대들이 큰 만큼 정초에는 기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다. 경자년은 특히나 시작부터 요란하였으므로 발원을 통하여 의도치 않은 우환을 피해갈 마음의 힘을 키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기도해서 다 이뤄진다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게 뭐가 있겠냐고 한다. 그렇다. 기도한다고 다 이뤄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란 것엔 동의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간절하다면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된다. 처음엔 무조건 기도효험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에 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마음이 차분해진다. 자신의 바람대로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혹여 그렇지 못한 경우 에라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도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할 인연의 일이라면 발원이 무르익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다. 혹 당장 내 생각엔 이뤄지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일의 결과가 인연 법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더 좋은 때의 인연을 위하여 명훈가피로 쌓이게 된다.

보현행원품에도 그러한 뜻을 보여주는 "발원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불보살은 미래도 함께 꿰뚫어 아시기에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 결과가 오히려 불신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일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발행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8			9	5			7
2	3			7		9	6
		9		6		3	8
	6			5	8		1
	2		3		6		9
3	5		2	1			7
5		2		8		6	
6	8	1		9			3
4			6	7			1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86호